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두란노아버지학교

30년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30

FATHER SCHOOL MOVEMEN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1



FATHER SCHOOL VISION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FATHER SCHOOL MISSION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

Contents

Duranno Father School Movement
30 Years of History

퍼낸날 : 2024년 12월 31일
퍼낸곳 :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퍼낸이 : 최성완
엮은이 : 송현영
디자인 : 킬링브러시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3길 9
전 화 : 02)2182-9100
팩 스 : 02)529-9230

04 감사 Greeting

최성완 | 김성묵

08 연혁 History

두란노아버지학교 30년

12 개요 Overview

왜 아버지학교인가?

16 과정 Curriculum

무엇을 배우나?

18 탄생 Birth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아버지학교

24 확산 Blossom

세계로 뻗어 나간 아버지학교

28 성장 Blooming

사회 속으로 다가간 아버지학교

36 축복 Blessing

아버지학교는 하나님의 선물

42 기쁨 Delight

아버지학교와
함께 걸어갈 30년

두란노아버지운동 30년 발자취와 미래 30년의 꿈



올해 30주년을 맞는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아버지 됨의 기쁨을 함께 찾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버지들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를 통해 많은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내와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변화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됨의 큰 기쁨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포용과 자녀 양육을 위해 돌보고 염려하고 희생하는 수고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행복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두란노아버지학교의 본질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한결같이 지속하도록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이 아버지들과 함께 걸어온 30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도 세상과 자녀세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사장

모두 주님 은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김성묵 장로님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버지학교는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이 틀림없네요.”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아버지학교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1996년 아버지학교를 맡고서 기도하며 동역자들과 세미나를 넘어 역동적 영적 운동을 꿈꾸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외치며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들의 인생관, 가정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사회를 향한 아버지운동의 비전을 주신 초대 이사장 하용조 목사님, 2대 이사장 이철 장로님, 그리고 초대 지도 목사 권준 목사님, 아울러 여전히 힘을 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님, 박종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 교회 목회자님의 관심과 지원이, 평신도 리더의 열정적 헌신이, 아버지학교운동을 ‘성령운동, 삶의 실천운동, 연합운동’의 바탕 위에 ‘한국에서 세계로, 교회에서 사회로,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확장되게 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해 주신 국내외 동역자와 아버지와 남편을 기꺼이 아버지학교운동에 파송해 주신 가족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교회와 기업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여 아버지학교운동을 알리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이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온 아버지학교운동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학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고문

연혁

아버지학교를 연 큰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시급한 사건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995. 10. 5

두란노서원 원장 하용조

1995

10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개설 65명 수료

1998

수원, 평촌, 일산, 부곡, 대구 지역 아버지학교 개설
765명 수료

12 축하행사 <비전 1999> 개최 “한라에서 백두까지”

1999

01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12 비전 2000 “아버지 당신은 부흥의 핵심입니다”

사회 운동 선포 권준 목사 미국 시애틀 파송

2000

세미나 100회 개설

01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 발족

05 KBS TV <추적60분> 방영
“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

11 국군 아버지학교 대구 50사단 개설

미국, 중국 개설

2001

-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 12 수료자 1만 명
- 홍콩, 인도네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개설

2002

- 01 가정전문잡지 월간 『아버지』 창간
- 12 수료자 2만 명
-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개설

2003

-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막힌 담을 허십시오!”
- 11 여주교도소 아버지학교 개설
- 러시아, 미국, 하와이, 일본 개설

2004

-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화해자가 되십시오!”
두란노어머니학교운동본부 발족
- 04 현대고등학교 학부모 아버지학교 개설
- 08 성북구청 열린아버지학교 개설
- 12 해외 수료자 1만 명
-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파나마, 아르헨티나 개설

2005

-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순결서약식 개최
- 09 법무부 ‘2005 아시아태평양 교정국장 회의’
혁신적 교화프로그램 소개
- 11 노숙인 아버지학교 개설
- 12 세미나 1,000회
- 한국전력공사, 신한은행, 고양경찰서, 경기도청,
기업 관공서 열린아버지학교 확산
- 타이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니카라과

2006

- 03 부부학교 개설
- 06 국군예비아버지학교 개설
- 11 장애인아버지학교 개설
- 스리랑카 이탈리아, 몽골, 터키, 아랍 두바이, 카자흐스탄
개설

2007

- 09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발족
- 12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 봉사활동
- 카타르, 멕시코, 파나마, 튀르키예, 인도 개설

2008

02 다문화아버지학교 개설

방글라데시, 가나, 코트디부아르 개설

2009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06 청소년감동캠프 개설

12 해외 수료 3만 명

괌, 이스라엘, 네팔, 개설

2010

01 비전 “아버지들이여,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12 세미나 3,000회, 전체 수료 19만

헝가리, 과테말라, 벨기에 개설

2011

01 특별기도회 개최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칠레,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개설

2012

11 해외 청소년감동캠프, 예비아버지학교 개설,

12 세미나 4,000회

케냐, 코스타리카, 불가리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요르단, 통가 개설

2013

01 비전 “아버지의 열정” 수료자 26만

07 법무부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채택

08 국방부 기혼 미혼 국군인성교육 프로그램 채택

피지, 탄자니아, 콜롬비아 개설

2014

01 비전 “다시 첫 마음으로”

아이티,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개설

12 해외 수료 5만 명

2015

01 비전 “감사로 여는 새로운 미래”

창립 20주년 수료자 30만

04 네팔 지진 피해 복구 모금 캠페인

10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 2035 미래비전 선포

창립 20주년 기념 가족사랑 걷기대회 개최

에티오피아, 미얀마 첫 개설

2016

01 비전 “초심으로 열어나가는 창조적 변화”

보츠와나, 파라과이, 몰도바 개설

2017

- 01 비전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하여”
- 12 세미나 7,000회
쿠바, 우간다, 스웨덴, 방글라데시 개설

2018

- 01 비전 “아버지의 심장으로 가정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 12 수료자 38만
모로코, 그리스 개설

2019

- 01 비전 ‘파더 블레싱 Father Blessing’ 개최,
사회적 실천 운동 선포
- 페루, 수리남, 르완다, 슬로바키아 개설

2020

- 09 코로나 팬데믹 대비 온라인아버지학교 개설
- 12 네팔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개설

2021

- 01 비전 “FROM UN TO ON”
- 12 온라인 아버지학교 개설

2022

- 01 세계대회 온라인 Zoom 개최 430명 참여
- 03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 모금
- 05 산불 피해 주민돕기 성금 모금

2023

- 01 비전 “신나게 아버지학교 합시다!”
-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개설

2024

- 01 아버지의 큰 기쁨 찾기 운동 선포
- 12 수료자 44만 3천307명
한국 포함 77개국, 해외 31개 도시 개설
- 파키스탄 개설

2025

- All Father's Movement
-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두란노아버지학교 파더블레싱 2019
Father Blessing 2019

개요

한국교회 가정 사역이란 말조차 생소한 시기,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
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
라는 인식 아래 1995년 10월 5일 두란노서원
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



왜, 아버지학교인가?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며
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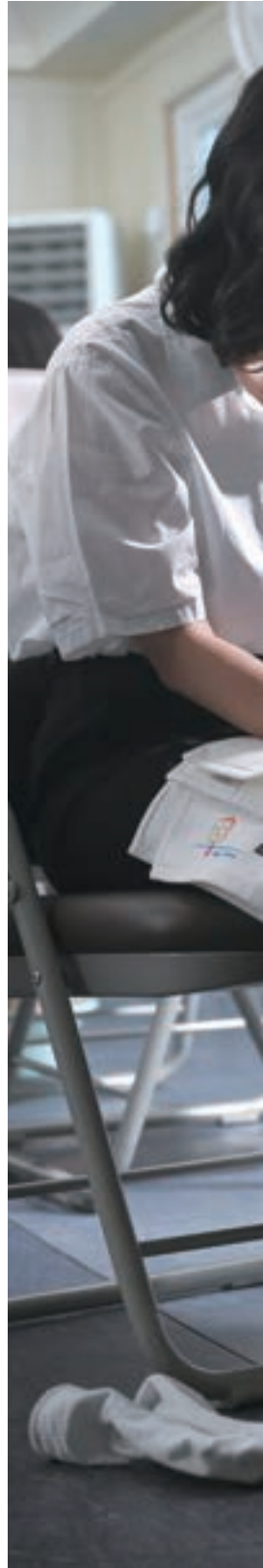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성경적 아버지상을 제시하며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역할을 알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올바르게 세워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아버지로 신뢰 받는 지도자로 사회의 어른으로 자리하며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와 일터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아버지 됨의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개설 및 수료 현황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버지의 사명을 외친 아버지들이 두란노아버지학교를 다녀갔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2024년까지 국내 80여 개 지역과 해외 76국 311개 도시에서 아버지 44만 3천307명이 다녀갔습니다. 아버지학교는 국내 남성 중심 정체성 회복 세미나로 시작했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해외 아버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남성, 어머니, 자녀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가정 회복과 공동체 부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 사회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4주에서 5주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참석한 남성들은 또래 남성들과 조를 이뤄 함께 주제강의를 듣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격려합니다.

매주 안아주기, 축복하기, 칭찬하기, 편지쓰기, 데이트하기 숙제를 하며,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대화와 소통이 원활한 아버지 되기를 실천합니다. 마지막 주 수료식에 가족을 초대해서 거룩한 아버지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축하합니다.

아버지학교는 스태프로 불리는 봉사자들의 정중한 섬김에 마음을 연 아버지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섬기는 아버지 사랑을 배워 가족에게 실천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놀라운 역동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했다는 수료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홍보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독교 남성 사역으로 자리했습니다.

과정

무엇을 배우나?



1. 아버지의 영향력

아내와 자녀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아버지의 중요성
자녀에게 긍정적 미래를 열어주는 아버지 역할 배우기

- 결속하기
- 사랑하기
- 인도하기
- 파송하기



2. 아버지의 남성

진정한 남성성을 훼손하는 문화에서 건강한 남성을 회복하는 길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

- 책임감의 회복
- 순결의 회복
- 지도력의 회복
- 사랑의 회복

3. 아버지의 사명

아내와 연합하여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가 되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사회적 사명을 이루기

- 자녀 삶의 원천 ■ 자녀 삶의 지표
- 자녀의 자부심 ■ 자녀 미래의 보장



4. 아버지의 영성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 권위를 실천하는 아버지

- 축복권 ■ 말씀권
- 훈육권 ■ 신앙전수권



5. 아버지와 가정

가정의 목자로서 아내와 자녀의 영적 성장을 돕고
아내와 하나 되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아버지

- 행복한 가정 ■ 아버지의 정체성 회복
- 부부 애착 관계 만들기 ■ 순결서약



탄생

성장과 발전을 향해 달리던 대한민국, 사회 기
초인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두란노아버
지학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일깨워 가정을 행
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
고 탄생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아버지학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아버지들이 나서야 합니다.”

경건한 아버지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고 하용조 온누리교회 목사의 주도 아래, 두란노서원에서 황은철 목사, 도은미 사모가 성경적 아버지 역할 교육을 만들고 ‘아버지학교’로 이름 지었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위원 김성목 고문(전 국제운동본부장, 3대 이사장)이 1995년 10월 1기를 수료하고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1기 지원자 65명은 온누리교회 자모실 앉은뱅이책상에 둘러앉아 부부 문제와 자녀 양육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자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신도 남성 리더십을 세우는 운동

1996년 12월 황은철 목사와 도은미 사모가 브라질로 떠나며, 1기 수료생들과 김성묵 장로는 아버지학교를 남성의 영적 회복을 위한 평신도 리더십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997년 8기부터 4주 프로그램을 5주로 구성하고 토요일 오후 진행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또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연합하는 남성 성령 운동으로 기획해 평신도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그 해 11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때 실직당한 남성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1998년 한 회마다 120명씩 등록하고, 대기자가 100여 명씩 몰리는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학교 남성 부흥 운동을 벌이다

아버지학교가 열리는 곳마다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고
방향하던 자녀가 귀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12월 12일 아버지학교는 수료자와 가족들이 모인
축하 행사 '1999 비전나이트'를 열고, 비전 “한라에서 백두
까지”를 선포했습니다. 사역 방향을 담은 ‘비전선언문’과 8가
지 실천 강령 ‘사명선언문’을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1999년은 대구, 부산, 포항, 울산, 광주, 제주까지 전국적으
로 아버지학교를 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를 마
친 봉사자들은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대구, 부산, 울산, 광
주 등 지방으로 내려가 아버지학교 열고, 토요일 밤 세미나
를 마치고 주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강행군을 하며 아버
지학교 전도사를 자처했습니다.

12월 18일 비전나이트 행사에서 새해 비전 “아버지, 당신
은 부흥의 핵심입니다!”를 선포하고 아버지학교가 교회 부흥
과 사회 운동(Movement)으로 방향을 정하고 해마다 슬로
건을 선포하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초대 이사장 하용조 목사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
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깨끗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나서서 남성 회
복 운동의 전도사로 나서주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자

“나의 최종 학력은 아버지학교입니다.”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돈만 벌어서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도끼로 머리를 맞은 기분입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아버지 됨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남성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IMF라는 경제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버지학교를 찾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 가정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5월 KBS TV <추적 60분>에서 대한민국 가정 위기와 남성 문제의 대안으로 아버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160명이 한꺼번에 지원하며, CBS TV, SBS TV, 극동방송에서 아버지학교를 소개했고, 8월에는 대구 50사단에서 국군아버지학교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확산

해외에서 아버지학교를 연 교회마다 아버지 학교 봉사팀이 꾸려지며, 이민교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아버지학교를 통해 용기를 얻은 아버지들이 가족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학교에 헌신하며 교회 부흥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는 2000년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름 휴가를 쓰고 차를 팔아 경비를 마련하며 한 아버지라도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봉사자들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4월 미국 포틀랜드 개설을 시작으로, 7월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계를 책임진 가정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며, 실직, 파산, 부부갈등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중국 연길 아버지학교를 마친 봉사자들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 첫 비전 슬로건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001년 홍콩과 북경이 열리고, 단둥, 산둥, 광둥, 심양, 상해 등 중국 35개 도시로 퍼져 나갔습니다.

2001년은 LA, 뉴저지, 피츠버그, 2002년 시카고, 댈러스 등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렸고, 캐나다 밴쿠버와 캘거리까지 한인교회가 협력하여 아버지학교를 열고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4년 LA 두란노서원에 미주운동본부를 세우고, 멕시코와 파나마,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으로 아버지학교를 전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2001년 인도네시아, 200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02년에만 45회를 열어 2천 593명이 수료했고 이때, 유럽은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해 2003년에 러시아까지 나아갔습니다. 한국 교민 가정을 위해 시작했으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 아버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3년 일본 오사카 1기를 시작으로 동경, 요코하마, 센다이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렸습니다. 남 앞에서 절대 속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조차 아버지학교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2006년 동경아버지학교 수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제 강점기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선교는 아버지학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아버지학교는 각 나라의 가정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남미 멕시코와 아시아의 대만,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는, 아버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봉사자들이 아버지학교를 들고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 튀르키예, 두바이, 카타르를 거쳐 인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76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린 ‘2010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운동의 강점을 활용한 효과적인 선교사례’로 발표돼 주목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운교 선교사(아프리카운동본부장)는 “20년이 넘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해왔지만 이제야 정답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버지학교만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성장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리는 곳마다 경이로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부부가 극적으로 하나 되
고 자녀와 갈등이 사라지면서 회복의 기쁨을
맞은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학교를 찾
아와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사회 속으로 다가간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 스태프로 불린 봉사자들은 자신의 교회와 직장에 적극적으로 아버지학교를 전했고, 아버지학교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어린 스태프들 열정 덕분에 아버지학교는 소외계층부터 대한민국 국회까지 사회 곳곳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교정행정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열린 아버지학교 수료식 날, 아버지학교 스태프 209명이 120명 수형자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이 세족식을 위해 아버지학교가 열리는 곳마다 찾아 다니며 120명의 발을 씻길 봉사자를 모집했고 209명이 자원하여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정역사를 새로 쓴 감동

2004년 12월, 여주교도소 5기 수료식은, MBC TV에서 생방송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MBC 일요토크> 자막이 흐르고, 수형자들이 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봉사자가 수형자의 발을 씻기며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교도소뿐만 아니라 교회나 회사, 군부대, 학교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감 태도가 전국 교정기관 교도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여주교도소에 서 천안, 안양, 공주, 청주, 대전, 마산, 진주, 청송 등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44개 교정기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05년 9월 아시아·태평양 32개국 교정국장이 모이는 '2005 아태교정국장회의'에서 모범적인 교정프로그램으로 소개되어 대만,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교도소에서도 아버지학교가 열렸습니다. 2013년 7월 법무부가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선정하면서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 위한 아버지학교 기업 공직 문화 바뀌

2004년 4월 현대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아버지학교를 열면서 비기독교인을 위한 '열린아버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성북구청 공무원 열린아버지학교 1기는 뜨거운 호응을 얻어 연달아 2기가 열리며 공직사회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월요일 저녁, 직장을 마치고 늦은 밤까지 섬기는 아



버지학교 스태프들의 열정에 공무원들은 부응했습니다. 2005년 9월, 성북구청 열린아버지학교 2기가 끝나고 수료 공무원 중심으로 술, 담배, 도박, 접대, 여가에 대한 '5 NO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공무원들이 관내 주민 대상으로 가정 친화적인 문화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성북구청 이후 경기도청, 안산, 광명, 포천, 이천, 고양경찰서 등 불뿔 터지듯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개설 요청이 밀려왔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인기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기획해 어린이집이나 각급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 아버지 역할 교육을 지원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2004년 8월 31일 두란노아버지학교 '세계지도자대회'를 열어 아버지학교 개최국 지도자들을 모아 대륙별 운영본부를 만들고 연합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그해 10월, 수료생 7만 명을 넘기면서 아버지학교는 운동본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아버지학교 해외 지부와 국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격려하는 예비아버지학교

2004년 6월 미혼 장병을 위한 국군예비아버지학교 1기가 국군 37사단 112연대에서 열렸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2000년부터 대구 50사단을 시작으로 기혼장병을 위한 아버지학교를 꾸준히 열었는데,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장교들과 군부대 최고 지도자들이 군 복무 중 부모가 이혼한 병사와 부대 적응이 어려운 신세대 미혼 장병들을 위해 '예비아버지학교'를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국군예비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병사들이 군부대에 잘 적응하고 부대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육해공군 군부대마다 병사들의 건강한 자존감과 결혼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 한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전군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3천여 병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향하는 아버지학교운동으로

2005년 1월 8일, 1천 명이 넘는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 성전에 모여 새해 비전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구호를 외치며 순결 서약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육체적 성결을 통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순결 서약식은 신문과 TV, 대중매체가 앞다퉈 보도하며 사회 속에 아버지학교를 다시 한번 널리 알렸습니다.

2005년부터 ‘열린아버지학교’는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 (주)한국원자력원료, 포스코, 효성 산업, GS 유통, 삼성 등 아버지학교를 개설한 기업마다 가정이 화목한 직원들을 통해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발전한다는 호평을 얻고 이상적인 임직원 교육으로 꼽혔습니다. 2007년 4월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열린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로 발족

교회를 넘어 사회 속으로 더 다가가자는 취지 아래 2007년 9월 1일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로 발족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수료자 12만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세상 속으로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쉼터아버지학교, 장애인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 등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아버지학교 스태프들은 2006년 강원도 평창 수해지역 지원 활동을 벌이거나 2007년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을 찾아 기름 제거 작업을 돕고 ‘희망의 아버지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 돕기, 중증장애인 돕기, 영세민 건물보수작업 등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살리는 감동캠프

2009년 5월, 두란노아버지학교 봉사자가 진행하는 ‘청소년 감동캠프’가 진천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어 증평정보고등학교, 덕벌초등학교에서 총 4주간 충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감동캠프는 교사인 봉사자들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모색하다 아버지학교를 모태로 청소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일깨워주고, 부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인성교육으로 각광받으며 현재까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복

아버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교회와 사
회를 잇는 가교, 교회 부흥의 원동력,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교회에 주신 하
나님의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첫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학교는 하나님의 선물

2010년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설립 15주년을 맞았고 19만 명이 수료했습니다. 15년 동안 중대형교회마다 아버지학교를 전담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배출했고 한국 해비타트, 가나안 농군학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청소년연맹 등 사회 단체들과 연합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서울시청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아버지학교’의 토대가 되었고, 천주교 신자를 위한 ‘성요셉아버지학교’나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재단의 ‘아버지교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일 하용조 1대 이사장의 소천으로 잠시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아버지학교는 나라 살리는 구국운동이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격려하신 뜻을 기리며 더욱 역동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수직 선교의 비전을 품고

2012년 온누리교회 2대 이재훈 위임목사를 중앙지도 목사
로 추대하고, 2012년 1월 14일 3천여 명의 아버지학교 헌
신자들이 모여 비전나이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외 개최
국 중 네팔, 인도,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지인 리더들까지 모여, 아버지학교
의 증인으로 새롭게 헌신하며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우리 사회 청소년 자살, 폭력, 동성애 문제
는 소망 없는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 아버지의 문제로, 아
버지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습
니다. 아버지학교 헌신자들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수직 선
교의 비전을 품고, 거룩한 생명을 전하는 헌신을 다짐하며
무릎꿇었습니다.





소명의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학교

2015년 개설 20주년을 맞은 두란노아버지학교는 30만 명이 넘는 아버지들이 다녀갔습니다. 아버지학교 헌신자들은 한층 전문성을 갖춰 선교사, 목회자, 상담가,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활약했습니다.

2035년까지 아버지학교 향후 20년을 이끄는 비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향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을 위한 아버지학교, 체계적인 교육 개발, 다양한 전문 강사 양성, NGO 단체와 협력하는 ‘아버지학교 비전 2035’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도약 제2의 부흥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 역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와 기업, 군부대에서 아버지학교를 열 수 없어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아버지학교’를 열었습니다.

비대면임에도 지원자들은 강의에 집중하고, 화상채팅으로 개인사를 나누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아버지학교는 수료자들 호응에 힘입어 해마다 대면 아버지학교와 병행해 열기로 했습니다.

2022년 4월, 두란노아버지학교 4대 이사장으로 최성완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1995년 아버지학교 1기 졸업생으로, 27년간 헌신한 김성묵 장로가 이사장에서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의 산증인인 김성묵 고문은 “아버지학교가 교회에서 세계로 나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학교 전도사가 된 동역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1대 이사장 고 하용조 목사, 2대 이철 장로, 3대 김성묵 장로에 이어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성완 장로는 1999년 수료 이후 20년 이상 해외 사역을 전담해 아버지학교 세계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영어 아버지학교’를 만들어,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아버지학교를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가정과 사회로

2024년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수료 인원 44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30년간 한국 포함 77개국, 해외 31개 도시에서 열려 유일무이한 남성 사역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학교가 쉬지 않고 열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버지학교가 교회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진정한 남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남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의 중요성 일깨워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사랑과 헌신, 존중과 배려로 통솔하는 아버지의 리더십이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전개하는 비전을 품고 더 낮은 땅끝으로 나아가 고자 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생각하는 이 시대 땅끝 선교는 방향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리더십으로, 사회적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아비 됨을 고한 아버지들은 다시 손을 들고 외칩니다.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향하는 아버지학교운동을 아름다운 영적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아버지학교와 함께 걸어갈 30년 스태프라서 감사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스태프로 봉사한 헌신자들의 열정과 희생 덕분에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학교를 열 때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스태프들의 감동을 나눕니다.

이상하게 아버지학교에만 오면, 힘든 감정을 드러내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니,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 스태프가 된 이유입니다.

원주에서 수료하고 영월, 평창, 정선, 태백, 홍천에서 아버지학교 열 때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달려갔습니다. 원주교도소에서 무기수의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한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감동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학교 할 겁니다.

아들을 다그치고 체벌만 했는데 아버지학교 하고 와서 약속했습니다. “체벌하지 않겠다!” 귀한 기도해주신 조장님과 스태프들이 고마워서 아버지학교 봉사했는데, 안 그랬다면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태어나서 밥 한 끼 굶는 것도 못하는 내가 지원자들을 위해 3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굶고 울기까지 하다니? 나도 내가 놀랍기만 합니다.



처음 어색하게 들어오는 아버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와락 안으면서 축복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을 섬기면서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기고, 점점 변화되는 지원자를 보며 성령 운동 아버지학교의 힘을 깨닫습니다.

직업 학벌 나이 묻지 않고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기니 마음이 절로 열렸다. 아버지라는 동병상련 아래 고민을 털어놓아서 든든하고 편했다. 무례하지 않고 온유한 분위기가 좋아서 봉사를 시작했다.

재혼하고 사업 부도나서 힘들었는데, 마음 기댈 데가 있어서 살 수 있었다. 주중에는 기도 모임하고, 토요일에는 봉사하고, 정말 남자들끼리 우정이 넘쳤다. 다들 형제 같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듯해진다.

아버지학교가 세계적으로 나간 데는 아내들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도 한몫했다. 나 역시 주말마다 아버지학교 가는 바람에 사업이 위태해져 아내가 울며 말릴 정도였다. 미성숙한 때였다고 변명하지만 아버지학교는 많은 이의 땀과 눈물 속에서 꽃피고 있다.

별거 중인 아내가 거절해서 수료식에 안 갔는데, 조장님이 폭풍우를 뚫고 수료증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조장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살 결심으로 스태프로 봉사하고 지금은 가정도 회복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와 함께 걸어갈 30년 덕분에 기뻐합니다!

아버지학교에서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학교 덕분에 아름다운 변화를 만난 기쁨과 감사를 말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워서 안 울려는데, 길 가다가 울고, 일하다 울고... 나도 당황스럽지만, 아버지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조원들에게도 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왜 가족에겐 못할까 싶어서 아내와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런 기쁨을 준 아버지학교, 참 고맙다!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싶다!

지루할 틈 없이 집중하고 재미와 감동, 때론 눈물까지.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정리되었다. 앞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려면 봉사하러 자주 나가야겠다. 인생의 멘토, 좋은 형님들 만나서 참 감사하다.

아버지학교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기쁨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이사 올 때도 아버지학교 티셔츠는 잘 챙겨왔습니다. 새로 열리는 곳에 봉사하러 갈 생각입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 제 마음도 아이들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아버지로서 축복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상 좋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구호도 알려주시고 자기소개도 하셨다.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 듣고 조원들과 공감하며 친해지니 아버지학교 하기를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축복기도입니다. 아내가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빨리 해!”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로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무뚝뚝하신 아버지께서 ‘언제 내려오냐?’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전화로 자주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꽤 많은 학교를 나왔지만, 제일 잘 나온 곳이 아버지학교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내와 아이들이 전과 다르게 나를 보고 웃을 때 참 기쁘다. 아버지학교 수료증이 어느 졸업장보다 값지다.

교회는 부담스럽지만, ‘아버지’라는 말에 용기 내어 지원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우리 아빠 맞아?”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되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학교에 가라고 한 대표님이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학교와 함께 걸어갈 30년 응원합니다!

아버지학교가 열리는 동안 지원자들은 진심으로 섬겨주는 스태프를 만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2024년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전하는 아버지학교 응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뜻깊은 섬김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할 수 있구나' 하고 경험했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당신의 봉사로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봉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 큰 귀감이 됩니다. 아버지학교 스태프들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나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주간의 훈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가정을 세우는 기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스태프와 조장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조장님을 만나 마음 편하게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이 깨닫고 아내와 관계가 좋아져서 참 행복합니다! 남자에게 아버지학교는 필수입니다!

3시간 즐기면 감동이 시작되고 행복해집니다. 보수 없이 친절하게 섬겨주시는 봉사자 들께 감동했고 정말 고맙습니다. 기회 되면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뭐라 표현해도 부족하지만 섬기시는 분들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셔서 가정에서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찌나 공감을 못 한 남편이었는지... 아내의 분노를 깨닫도록 조장님과 봉사자들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상처로 힘든 가정이 많은 이때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인 저를 존중해줍니다. 더 많은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봉사자 분들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특히 찬양이 행복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조장님은 하늘에서 오신 천사같았습니다. 허깅과 진심어린 기도와 배려, 천국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 77개국 / 해외 31개 도시 / 443,307명 수료

캐나다

밴쿠버(2001.4), 캘거리(2002.9),
토론토(2003.3), 몬트리올(2005.2), 세
인트존(2011.4), 위니펙(2012.6)

미국 개설도시 57

포틀랜드(2000.4), 시애틀(2000.7),
샌프란시스코(2000.7), LA(2001.3), 산호세(2001.3),
피츠버그(2001.5), 볼티모어(2001.9), NY/NJ(2001.10),
터코마(2001.10), 샌디에이고(2002.3), 델라스(2002.5),
조지아(2002.6), 시카고(2002.7), 하와이(2002.10),
마이애미(2003.2), 필라델피아(2003.5),
에드먼턴(2003.6), 알래스카(2003.8), N Bay(2003.11),
라스베이거스(2003.12), 애리조나(2004.3),
버지니아(2004.5), 노스캐롤라이나(2004.10),
휴스턴(2004.10), 오거스타(2005.4), 콜로라도(2005.4),
디트로이트(2005.9), 새크라멘토(2005.10),
오스틴(2005.10), 코네티컷(2005.10), 테네시(2006.3),
샬럿(2006.4), 오클라호마(2006.8), 스포칸(2007.4),
사우스캐롤라이나(2007.5), 임페리얼(2007.5),
캔자스(2007.5), 템파(2007.8),
인디애나폴리스(2007.10), 워싱턴(2008.6),
베이카스필드(2008.8), 프레조노(2009.3),
솔즈베리(2009.4), 엘파소(2009.4), 오리하(2009.4),
올란도(2009.6), 엘라배마(2009.9), 델라웨어(2009.11),
보스턴(2010.2), 미네소타(2010.4), 샌안토니오(2010.10),
유타(2011.9), 아이다호(2012.3), 위스콘신(2012.5),
미주리(2013.10), 오하이오(2019.3)

멕시코 개설도시 39

티후아나(2007.4), 라피에다드(2009.4),
멕시코칼리(2009.5), 후레아스(2009.7),
비야에르모사(2009.9), 엔세나다(2009.9),
푸에르토바야르타(2009.11), 코망칼코(2010.1),
카데나스(2010.6), 모렐리아(2010.10), 치후아후아(2010.12),
테카테(2011.3), 산루이스리올로라도(2011.5),
치아파스(2011.6), 칸쿤(2011.10), 멕시코시티(2011.11),
쿠아우트라(2012.1), 마자탄(2012.2), 과달라하라(2012.5),
시우다드델카르멘(2012.8), 아카스칼리엔테스(2012.10),
에밀리아노 사파타(2012.10), 메리다(2013.5), 아카풀코
(2013.8), 미커스파나(2013.10), 쿠에르나바카(2015.5),
산 크리스토퍼(2015.11), 르클레시아 베라 크루즈(2016.7),
멕시코칼리(2016.10), 코레지도라(2016.10),
Jardenensol(2017.8), 코미탄(2018.3), 토레온(2019.5),
산호세 델 카보(2019.10), 타파술라(2022.06),
로스 카보스(2022.09), 믹스틀라(2023.04),
시우다드 오브레곤(2023.07), 타필틀라(2023.08)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2010.8)

니카라과

마나과(2005.12)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2012.3)

콜롬비아

콜롬비아(2013.11),
이바구에(2016.10), 아마존(2017.8)

페루

피스코(2019.3)

칠레

산티아고(2011.4), 발디비아(2019.10)

쿠바

하바나(2017.6)

아이티

아이티(2014.3)

파나마

파나마시티(2007.12)

수리남

파라마리보(2019.4)

슬로바키아

트르나바(2019.9)

스웨덴

스톡홀름(2017.12)

헝가리

부다페스트(2010.5)

그리스

아테네(2018.12)

영국

런던(2005.8), 밀턴케인스(2017.7)

벨기에

브뤼셀(2010.11)

프랑스

파리(2002.1)

스페인

바르셀로나(2012.9), 마드리드(2015.10)

모로코

모로코(2018.2)

독일

프랑크푸르트(2002.1) 뒤셀도르프(2012.11)

스위스

제네바(2011.9)

이탈리아

밀라노(2006.2), 로마(2018.4)

코트디브아르

아비장(2008.10)

가나

아크라(2008.2)

파라과이공화국

아순시온(2016.4)

볼리비아

산타크루즈(2012.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2004.7)



우크라이나

키예프(2012.7), 드니프로(2018.5)

몰도바

몰도바(2016.11)

루마니아

부카레스트(2013.2), 크라이오바(2014.4), 갈라라시(2014.11)

불가리아

소피아(2012.5)

튀르키예

이스탄불(2006.10)

레바논

베이루트(2023.02)

요르단

요르단(2012.11)

이스라엘

예루살렘(2009.8)

카자흐스탄

알마타(2006.10)

파키스탄

라호르(2024.09),
(2024.10)

키르기스스탄

알마타(2006.10)

네팔

카트만두(2009.10), 치투완(2010.10),
포카라(2010.12), 나랑가드(2012.3),
버네파(2013.8), 비르겐즈(2014.12),
부두왈(2016.3)

방글라데시

다카(2008.10)

미얀마

만드레이(2015.11)

캄보디아

프놈펜(2004.6), 시엠립(201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02.1),
암팡자야(2010.4), 조호(2013.5),
사바(2014.5)

싱가포르

싱가포르(200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01.7), 반둥(2001.11),
수라바야(2003.4), 서부자바카라왕(2008.6),
수마트라(2008.7), 중부자바구두스(2010.6),
카라왕(2011.10)

러시아

모스크바(2003.2), 상트페테르부르크(2004.10),
블로그라드(2011.1), 사할린(2014.8),
우수리스크(2017.9), 투멘(2018.6),
프로코페프스크(2019.8)

몽골

울란바토르(2006.8),
도르노드(2015.7)

중국 개설도시 35

연길(2000.7), 천진(2000.12), 북경(2001.9),
단둥(2002.5), 광주(2002.5), 연대(2002.7),
심양(2002.10), 심천(2003.1), 청도(2003.2),
상해(2003.11), 대련(2004.3), 위해(2004.10),
곤명(2005.3), 남경(2005.4), 소주(2005.4),
장춘(2006.6), 우투무치(2006.8), 동관(2007.9),
헤주(2007.11), 이우(2008.1), 황주(2008.6),
연변(2010.8), 무석(2010.3), 가흥(2010.9),
무한(2011.4), 장사(2011.10), 쑤저우(2012.3),
운주(2012.5), 성도(2013.9), 사면(2014.6),
창저우(2016.4), 중산(2016.6), 창난(2016.7),
핑양(2019.7), 대리(2023.10)

일본 개설도시 25

오사카(2003.11), 동경(2006.2), 요코하마(2006.6),
요코나와(2007.9), 고베(2007.10), 후쿠오카(2008.1),
신주쿠(2009.4), 나가노(2009.11), 니시토쿄(2010.1),
센다이(2010.1), 아키타(2010.3), 오코하마도치쿠(2010.5),
후쿠시마(2010.11), 야마기타(2012.4), 사이타마(2012.7),
신수(2012.7), 나고야(2012.9), 카나가와(2013.1),
사시타마(2013.7), 시카타(2013.10), 카코시마(2013.11),
마에바시(2014.11), 아마구치(2014.11), 삿쵸(2016.7),
삿쵸(2018.5)

대만

타이베이(2005.2), 가오슝(2006.12), 신주(2008.4),
타오위엔(2009.7), 화리엔(2009.9), 장화(2010.4),
타이펑(2010.5), 장메이(2010.6), 룽탄(2010.6), 자이(2010.8),
타이둥(2010.8), 화롄(2010.11), 도원(2011.4), 신죽(2011.10),
신북(2014.5)

태국

방콕(2004.1), 파타야(2005.4),
푸켓(2008.9), 치앙마이(2014.1)

필리핀

마닐라(2004.9), 바기오(2011.1), 일로일로(2014.9),
민다나오(2014.10), 앙헬레스(2017.10)

통가

누쿠알로파(2012.12)

피지

수바(2013.2),
Nailaga BA(2017.6)

뉴질랜드

오클랜드(2002.9),
크라이스트처치(2006.9),
타우랑가(2023.09)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2001.7), 멜버른(2003.8), 브리즈번(2008.8),
퍼스(2008.11), 캔버라(2009.11), 골드코스트(2010.8),
아델라이드(2010.9), 그랜빌(2015.6), 투움바(2016.11)

우간다

컴팔라(2017.10)

르완다

르와말라(2019.8)

케냐

나이로비(2012.3)

탄자니아

단자니아(2013.10)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2014.11)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2015.2)

잠비아

키트웨(2023.08)

보츠와나공화국

틀로크렐(2016.4)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티리아(2005.8), 케이프타운(2005.8), 루스텐버그(2010.2),
요하네스버그(2010.2), 말머스베리(2014.6), 나마칼란드(2023.9)

카타르

도하(2007.4)

쿠웨이트

쿠웨이트(2014.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2006.10),
아부다비(2016.9)

인도

첸나이(2008.2),
벵갈로(2009.1),
나갈랜드(2009.8),
캘커타(2009.8),
델리(2010.8)

스리랑카

콜롬보(2006.1),
넬콤보(2014.8)



father.or.kr 02.2182.9100